

[매경시평] 학문이 진화하려면

필자는 수업시간에 종종 학문을 살아 있는 생명체에 비유하곤 한다. 생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정란은 왕성한 '분열'을 거쳐 각 기관을 형성하고, 각 기관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라나면 다시 분열해 적절한 생명력을 유지한다. 학문의 진화도 이와 매우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인류 역사와 함께 지식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문은 분열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세분화·전문화되었고, 이를 통해 더욱 풍성해졌다.



그런데 학문이 성장·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문과 생명체 간 또 다른 유사성이 있다. '통합'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통합이라는 과정 없이 분열만으로 번식하는 짙신벌레나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들은 아무리 분열을 반복해도 동일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재생산되는 것에 불과하다. 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유전자가 만나 합해지는 통합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경계에 속한 학문들이 만날 때 비로소 새로운 학문 영역이 탄생하게 된다.

사실 기존 학문들 간 연계와 통합을 통해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최근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미 오래 전 독자적 영역을 구축한 경영학은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 유전자가 통합돼 있는 학문이다. 경영학 연구대상은 기업이며, 기업은 다양한 구성요소와 행동패턴을 가진 조직체다. 기업 경영에서 나타나는 제반 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학문들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차용하고 결합한 것은 필연이었다.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학제 간 연구도 이와 맥을 함께하는 것이다. 지식의 증가에 따라 인류는 자연스럽게 학문의 분업체제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분업화된 학문체계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제 간 연구가 등장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제 간 연구를 목표로 설립된 30 여 개 협동과정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새로운 현상들을 기존 학제 틀에 얽매이지 않은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학은 학문 자체에 내재된 도구적 특성으로 인해 언어학, 경영학, 경제학, 약학, 의학, 음악,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들과 연계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공학과 경영학의 연계는 기술경영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다. 사실 경영학도들은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고, 공학도는 자신들의 발명이 갖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기술 경영은 이에 대한 하나의 해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학은 예술과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 비디오 아트를 들 수 있다. 백남준은 형체 없이 역동성만 강한 음악과 형체는 있으나 정체성이 부족한 음악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만남을 모색하다 당시 출시된 TV 수상기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1950년대 개발된 컬러 영상 기술이 없었다면 1960년대 초반부터 미술과 음악의 통합을 시도한 백남준도, 그의 비디오 아트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비디오 아트는 공학과 예술의 통합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학문은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며 다양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학문에 있어 분열과 통합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분열은 쉬우나 기존 경계를 허무는 통합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따라서 학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개방적이어야 하며, 패러다임 전환에 늘 열린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경계를 허무는 것을 인정할 때, 경계를 박차고 나가는 새로운 학문 영역이 탄생하고, 경계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 학문이 보다 풍성해지고 더욱 진화하게 될 것이다.

[강진아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과정 교수]